



한국하이델베르크 프로젝트팀

“인쇄사의 수익창출에 최우선 가치”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조직과 맨파워 갖춰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 www.kr.heidelberg.com)는 인쇄 및 출판 업계 종합 솔루션 공급사로서 인쇄 전 공정인 프리프레스에서 인쇄 및 제책,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어떤 사업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하이델베르크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중 프로젝트팀은 적은 인원이지만 회사의 경영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 인정받고 있다.

작지만 특별한 부서, 프로젝트팀

프로젝트팀은 사내에서는 작지만(Small), 큰(Big)팀으로 통한다. 많지 않은 인원인 7명으로 구성된 팀이지만 팀원 모두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팀은 철저한 제품 우선주의와 고객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컨설팅을 아끼지 않는 하이델베르크의 경영이념을 최전선에서 실천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프로젝트팀은 매엽인쇄기 부문, Prinect & CTP 부문, 프

리프레스 부문, 후가공 부문 및 운전/겔루스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프로덕트 팀의 구성은 글로벌 기업인 하이텔베르그의 요약 편이라 할 만 하다. 전통적인 강세 부문인 매엽인쇄기 및 운전부문을 비롯, 최근 인쇄산업에서 그 비중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는 CTP 및 프리프레스와 후가공부문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어 인쇄기에 대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이 크다.

겔모습만 보게 되면 결국 '기술영업부'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프로덕트팀의 입장은 다르다. 단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팀 등 사내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인쇄기와 솔루션을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판매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판매회사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하이텔베르그의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로덕트팀을 이끌고 있는 군나 보그트 상무는 "팀원 모두가 뛰어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스페셜리스트이면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와 고객의 수익성 극대화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있다"며 "작지만 큰 팀으로 칭찬받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소개했다.

패키지인쇄로 영역 확장 꾀해

세계시장에서 매엽인쇄기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텔베르그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게 인쇄기 제품군 뿐 아니라 솔루션까지 일체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드루파2008에서 하이텔베르그는 기준에 갖고 있던 '고성능(HEI Performance)', '고가치(HEI Value)'에 맞는 회사로서의 신뢰, 뛰어난, 고객 충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는 한국하이텔베르그의 프로덕트 팀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다름이 아닌 패키징 부문의 강화이다. 현재 매엽인쇄기 부문을 이끌고 있는 이근성 부장은 "앞으로 매년 10%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패키징 부문에 종합적이고 편의성을 강조한 솔루션을 제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2009년의 주된 목표의 하나"라고 밝혔다. 하이텔베르그는 지금도 고객들에게 간단한 박스에서 특수 표면 처리를

거친 보드에 이르기까지 패키징 제품군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장은 "독특한 마감, 뛰어난 제조 노하우 및 특수 효과의 사용 등으로 패키징 인쇄에서 하이텔베르그의 제품 및 솔루션을 구입한 고객에게 타사와의 확연한 차별화로 수익 창출의 파트너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매엽인쇄기 부문도 인쇄기뿐만 아니라 전후 공정을 총괄하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애니칼라를 중점으로 다품종 소량인쇄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고객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창출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객의 어려움 함께 하는 프로덕트팀

프로덕트팀은 올 한해의 마케팅 활동의 초점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에 두고 있다. Prinect & CTP 부문을 이끌고 있는 강성민 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들을 위해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시간을 들여 시제품을 만들던 패키지회사에 모니터상에서 수정이 가능한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해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돕고 있다.

운전/겔루스 부문에서는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영룡 부장은 "보통 16페이지 인쇄가 최대이지만 하이텔베르그에서는 최대 90페이지를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를 보유, 공급하고 있다"며 "비록 고가이기는 하지만 운용비용이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고객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가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모주홍 과장은 "고객의 니즈 파악에 주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 하이텔베르그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후가공 기계를 중저가에 공급해 고객사들의 자금 사정을 덜어주는 한편으로 높은 생산성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며 파트너십의 실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국하이텔베르그의 프로덕트팀. 그들의 열정과 진정성에 '스페셜리스트'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